

대만 총통에 '반중' 라이칭더...중국과 갈등 심화 불가피

입법원 과반 장악 실패에 난관 직면...미국산 무기 구매 제동 관측도 중국, 무력시위·경제협력기본협정 제재 확대 등 전방위 '강공' 예고

대만 총통선거(13일)에서 진미·독립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으나, 내우외환이 산적해 협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미중 대리전' 양상의 이번 선거에서 라이칭더가 진땀을 거두긴 했지만, 중국의 강공으로 대만이 이전보다 더한 '갈등의 섬'이 될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는 라이 당선인의 차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이 당선인이 직면한 최대 난관은 과반 장악에 실패한 입법원(국회)이라고 할 수 있다. 4년 전 113석 중 61석이었던 민진당 의석수가 이번엔 51석으로 줄었다. 이는 제1야당인 친중 국민

당(52석)에도 한 석 뒤진다. 8석을 쥔 제2야당 민중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것이다. 국민당과 맞서는 상황에서 민진당이 자력으로 입법원을 좌지우지 못 하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2016년(56.12%)과 2020년(57.13%) 총통 선거에서 모두 50%를 넘겼던 현 차이잉원 총통과는 달리 이번 총통선거에서 40.05% 득표에 그친 라이 당선인에게 '입법원 변수'까지 더해진 셈이다.

이런 변화로 차이잉원 총통 집권기에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돼온 미국산 무기 구매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진미·독립' 성향 민진당 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산 첨단 무기 구입에 속도를 내왔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패권 도전국인 중국을 효율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호응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총통선거 후보 단일화까지 시도했던 친중 성향의 국민당과 중도 노선 민중당은 민진당과 결이 달라서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여러 채널로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전변화 대변인은 선거 결과가 대만의 '주류 민의'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국제사회는 라이칭더 당선인이 정식 취임할 오는 5월 20일까지를 '위험 시기'로 본다.

왕신선 대만정치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초빙교수는 최근 싱가포르 중국어매체 연합조합에 "중국은 라이칭더가 5월 20일 취임식에서 자신들이 듣고 싶

은 말을 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재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작년 4월 차이 총통의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방미 회동을 빌미로 대만 봉쇄 군사 훈련을 했던 중국이 또다시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제재 확대도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지난 9월 대만산 농수산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에 대한 관세 감면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마잉주 대만 총통 집권 시절인 2010년 중국과 대만이 합의한 ECFA는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경제적 강압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도 '중국 문제'를 최대 난제로 보는 듯하다.

라이 당선인은 "이번 대선은 민주와 권위주의(威權) 사이에서 대만이 민주주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안(중국과 대만)은 대화·교류해야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교류로 봉쇄를, 대화로 대화를 대체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다.

국제사회는 라이 당선인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주목하고 있다.

외교계에선 라이 당선인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차이 총통과 마찬가지로 대만 독립 의지를 강조했다. '독립 선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독립의 지에는 변함없지만 독립을 선포하지는 않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갈등을 피해갈 것으로 보는 것이다.

라이칭더는 당선 확정 후 "새로운 입법부 구조에서 소통, 협의, 참여, 협력"을 추구하면서 당을 뛰어넘는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과테말라 '좌파 대통령' 당선 환영 14일(현지시간) 과테말라시티 한정광장에서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시민이 아레발로 당선인과 그의 부친 후안 호세 아레발로 전 대통령(1945~1951년 재임)의 사진과 함께 '과테말라여 전진하라'라고 적힌 작은 깃발을 들어 보이고 있다. 후안 호세 아레발로는 1944년 과테말라 혁명 이후 '첫 좌파 민선 대통령'이었다. /연합뉴스

가자전쟁 100일... '종전' '인질 석방' 집회

세계 30여개국서 대규모 시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14일(현지시간)로 100일을 맞았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난 주말에도 각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은 전쟁 100일을 하루 앞둔 13일을 '세계 행동의 날'로 삼고 세계 30여개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었으며, 친이스라엘 시위대도 이틀날 런던, 베를린,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맞불 집회를 나섰다.

AP·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4일 런던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시위에는 수천 명이 참여해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가자에서의 100일' 등의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이스라엘과 인질에 대한 연대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집회에는 영국 국적 인질의 가족도 참여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급습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을 납치했다. 이들 중 100여 명이 협상을 통해 풀려났지만 132명은 여전히 억류 중이다.

런던에서는 바로 전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종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하루 차로 열린 두 집회에서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의 가방을 검사하고 집회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AP는 전했다.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에서도 비슷한 친이스라엘 시위가 이어졌다.

이슬람 인구가 많은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등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이어졌다.

파키스탄 남부 도시 카라치에서는 전쟁 100일을 맞아 이날 수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나와 즉각 종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으며, 튀르키예 수도 이스탄불에서도 20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DC에서는 13일 미 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수천 명이 모여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바이든 손에는 피가 묻었다", "집단학살' 조에 투표 안 한다'(No votes for Genocide Joe) 등의 팻말을 들고 바이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을 비판하며 미 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영국국 기지가 있는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 해안 마을 리마솔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군기 앞에서 전쟁 반대와 군대 철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 기지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전달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역을 공습의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영국 비행기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영국 정부는 이집트로 가는 가자지구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흑한에도 미국 공화 경선 아이오와주 선거 열기 후끈

후보자들 당심에 지지 호소

오는 11월 대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첫 경선을 하루 앞둔 미국 아이오와주는 14일(현지시간) 체감온도 30도를 밑도는 '북극 한파'에도 불구하고 선거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당원들은 살을 에는 듯한 맹추위나 강풍, 폭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마련한 유세장을 찾아 응원하며 승리를 기원했다.

공화당 경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최근 상승세를 타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이날 유세에서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며 당심(黨心)에 호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책보다 자신의 카리스마를 부각했고, '추격자' 헤일리 후보는 마치 강연장에 나선 교수처럼 토박토박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며 안정감 있는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려 했다.

아이오와주 인디애놀라소재 심슨대학에서 열린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 눈폭풍의 영향은 '제로'임을

알 수 있다"며 "내일 모두 나와서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끝내자"고 말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오후 아이오와주 스토리 카운티의 한 BBQ 식당 공간을 빌려 200명 안팎의 지지자들 앞에 섰다. 헤일리는 "중산층이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감세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게 함으로써 경제의 박동을 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러시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